



Vital Power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경탄할 만한 저항은 실패한 역사가 실증

드넓은 카리브 해에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늙은 어부는 어느 날 홀로 나간 바다에서 18척 크기의 청새치가 그의 낚시 바늘에 걸려든 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뜬다. 하지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새치와 사흘 밤낮을 씨름하며 사투를 벌린 끝에 간신히 청새치를 뱃전에 매달 수 있게 된 노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의 공격을 받고 끝까지 싸우다 지친 몸으로 항구에 도착한다. 하지만 청새치는 앙상한 뼈만 드러낸 상태였다.

헤밍웨이의 작품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0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목되는 명언은 “인간은 파멸(destroy)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defeat)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설의 노인은 물질적으로는 잃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헤밍웨이가 전하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일 것이다.

저항의 철학은 스피노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식론자인 카바예스(Jean Cavailles)는 2차 대전 중 레지스탕스에 가담 투쟁하다가 1944년 나치에게 체포돼 총살되어 처절한 삶을 마감했다. 자신의 삶에 위험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카바예스는 자신의 행동이 역사의 필연적 사건으로 기억되도록 논리적으로 저항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다. 경탄할 만한 수많은 저항들이 실패한 역사가 이를 실증해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적 실패가 도덕적 패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의 여성 반란군 대장인 풀란(Phoolan Devi)은 남편을 포함한 마을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죄지은 남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노상 강도단에 합류해 먼저 남편을 살해한 다음 그 시체를 당나귀 등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풀란의 반란을 여성운동의 화신으로 칭송하며 그녀를 무시무시하고 고귀한 여신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풀란은 감옥에서 11년을 보낸 후 사면되었다. 사면된 그녀는 인도의 열악한 여성 인권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2001년 6월 어느 날 풀란은 백주에 그녀가 죽인 강간범의 친척으로부터 총을 맞고 살해되었다.

인도 국민은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를 살아있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승격시켰고 그녀의 이야기는 인도 시골 마을에서는 지금도 열광하는 서사시로 전해지고 있다.

11세기 북송의 사마광은 그의 불후의 명작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했다. 이 자치통감은 B.C. 2세

기 한무제(漢武帝) 때에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史記)와 더불어 고대 중국 역사서의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사마광은 말년에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그의 수제자인 유안세(劉安世)가 동료들에게 “나는 지난 5년 동안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한마디로 터득했으니 그것은 곧 성(誠)이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마광은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평소 남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언행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 근사록(近思錄)의 수양(修養)편에 기록되어 있다. 참으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당당한 노스승의 편모를 보는 듯하다.

중용(中庸)에 불성무물(不誠無物)이란 말이 있다. 인간이 성실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정직, 근면, 사랑, 책임 등 훌륭한 삶의 덕목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덕목이 바로 성(誠)이 아닐까?

1905년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헤이하치로(東郷 平八郎)는 쓰시마 해협에서 세계 최강의 발트함대를 괴멸시킨 대승을 거두고 개선했다. 천황(明治)은 그에게 군신(軍神)의 칭호를 하사하고 모든 신민은 전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발트함대는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 29척으로 구성된 막강한 함대였으나 겨우 2척만 시베리아 남단의 극동함대에 복귀했을 뿐 모든 함정은 격침되거나 일본 해군에 나포되었고 심지어 함대 사령관도 포로가 되었으니 이로써 러일전쟁은 종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 조야는 도고 제독의 승리는 영국 벨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격퇴한 것처럼 빛나는 승리였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도고는 벨슨이나 자기는 온 나라가 밭 벗고 도운 까닭에 승리한 것으로 이는 당연한 승리였다면서 역사상 최고의 해전 승리를 이끈 제독은 조선의 이순신이라고 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도고는 이순신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나 홀로 싸워(無援孤鬪) 이겼으며 전장에서 싸워 죽으며 나라를 구한(殺身救國)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해군 전략가인 헐버트(Hulbert)는 한산대첩을 살라미스 해전 이래 최고의 빛나는 승리라고 격찬했고, 영국 해전사의 전문가인 발라드(G. A. Ballard)는 이순신의 학익진(鶴翼陣)을 ‘숙련된 함대의 표본’이라고 평가하면서 벨슨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순신의 학익진 전법을 이용했다고 했다. 우리는 이순신을 성웅(聖雄)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를 옳게 평가하고는 있는 것일까?

에너지 위기를 맞은 선진국의 정책

에너지 위기를 맞아 선진국이 채택한 중요한 정책의 일부를 살펴보자.

(1) 1979년 미국은 AWACS(공중정보정찰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했다. 이 AWACS는 당시 미국의 1급 비밀 군사장비로 우방국인 영국에도 제공하지 않

았던 것인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 인종,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게 1급 비밀 군사장비가 왜 제공되었을까?

1979년은 이란의 친미정권이 붕괴되어 미국과의 외교 단절, 석유 수출이 금지되었고,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종신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의 외교 단절과 석유 수출을 결정했던 해로서 특히 후세인은 회교 혁명 수출을 공언하고 있어 사우디는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은 석유의 확보가 시급해 사우디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big deal을 하게 됐는데 이는 이념보다는 국익이 최우선임을 말해 주는 사건이다.

(2) 1970년대의 oil shock를 맞아 석유 자원이 없는 일본과 프랑스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프랑스의 전력회사(Edf)는 ‘모든 전력은 모두 원전으로’란 전원계획의 혁명적 수정으로 신규 전원을 원전으로만 개발해 현재 국내 전력의 원전 비율이 75% 이상일 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 전력을 수출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탈석유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중점 개발하는 sun-shine 계획과 에너지 절약형 전기제품과 에너지 저장기기를 개발하는 moon-light 계획을 추진했다.

(3)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트함대가 궤멸된 이유의 하나로 군함의 연료인 석탄이 매우 열악한 점을 인식해 이를 석유로 전환한 첫 국가가 영국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해군이 우세했던 것은 군함의 연료를 석유로 대체한 인물이 바로 처칠이었던 것이다.

(4) 국제 외교 전문가이며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 박사는 에너지(석유)는 경제 개발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국제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vital한 자원이라고 언급했다. 🍌